

대행 스님

자기 의식 속에서 나오는 생각에 말리지 마세요

관법 알려주고 싶은데 자신이 없어요

질문 요즘은 제가 마음공부를 하면서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직장 동료들의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을 지켜보면서 관하는 걸 일러 주고 싶은데 아직 제 공부가 짧아서 자신이 없습니다. 관하는 걸 확실하게 알려 주고 싶은데 어떻게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답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제도하시는 그 공덕이 크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관하는 것만 일러 주세요. 여러 말을 가르치지 마시고요. 우환이 있거나 애고가 있거나 가난하거나 그렇다면 그것을 놓고 '너만이 가난치 않게 할 수 있잖아. 내가 못났으면 좀 더 지혜로운 마음이 생기게끔, 물리가 터지게끔 할 수 있는 것도 너밖에 없잖아!' 하고 그렇게 하라고 해 주면 그냥 자기가 하면서 체험을 하게 되거든요. '아, 이럭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몇 번 그렇게 해 보고 그게 되더라 이러는 건 알았는데, 또 큰 거는 자기가 힘이 없어서 못 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자유죠. '내가 조그마한 건 이렇게 되는데 큰 거는 안 될 거다. 요렇게는 되는데 이렇게 큰 거를 힘없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나?' 요렇게들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과거에 업을 얼마나 지었기에 이런 고통이 오나?' 요런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업 붙을 자리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생각해서 입력이 된 것을 모두 지워 버리면 되는 거지, 그 업이 어디에 붙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무명천을 넘어서라." 이러니까 이 무명천이 어디 있나 하곤 그냥 찾아다니다가 하세월을 보냈대요. 그러니 불사천에 가지도 못하고, 넘지도 못하고, 그냥 천 년이 지났다는 거죠. 그런데 왜 무명천이라고 했을까,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무명이 붙을 자리가 없다는 얘깁니다. 내가 만들어서 업을 받고 애고를 당하고, 내가 구덩이에 빠지게끔 만들어 놓고 빠져 가지고 애를 쓰는 거지, 누가 구덩이에 빠지라고 했습니까? 누가 구덩이에서 나오라고 했습니까? 누가 죄를 받으라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만들어서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리면서 잘 조절해 나가면서 자기를 믿고 찾아라 이거죠.

나는 그래서 이날까지 '내가 잘되게 해 주시오.' 하고 손을 꼽고 빌어 본 예가 없어요. 죽든지 살든지, 잘되든지 못되든지 그런 걸 가리지 않았으니까요.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 않으니까. 그렇게 굴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보이지 않는 중생들과 더불어 친구가 된 거지, 그것을 무서워서 피했다면 귀신들의…, 여러분, 귀신들이 어딨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의해서 귀신들이 있고, 여러분의 생각에 의해서 조상이 잘못됐고 이런 거죠, 다. 그리고 조상의 탓을 하고요. 이 문제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한생각을 잘하면 모두가…, 무명천이 아예 없어요.



그림 · 최주현

지구가 큰 몸살을 앓고 있는데

질문 요즘은 우리 지구가 아주 큰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지구 안에 붙어사는 우리들은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마음공부를 하는 불자로서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허허 웃을 수 있는 장부가 되고 싶은데 어떤 마음으로 공부해 나가야 할는지요.

답변 앞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산과 들로 배를 타고 다녀야 하고, 물속으로 수레 마차를 타고 다녀야 할 지경에 도달할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속에서 파먹을 걸 다 파먹고, 곶감 꼬치처럼 쌓아 놓은 거를 다 빼먹고 나면 나중에 먹고 살 게 없을 때 어떡해야 할까요? 하기야 뒤집어서 물속이 만약에 산이 되고 들이 된다면 또 파먹을 게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마음으로부터 만 가지 법을 내놓을 수도 있지만 만 가지 법을 들일 수도 있고 둘째, 내가 만 가지의 모습을 할 수도 있고 만 가지의 모습을 거둘 수도 있고 또 셋째, 내가 만 가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 만 가지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고, 이러한 뜻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안 되리만큼 지금 시대가 빠르게 치닫고 있습니다.

알고 본다면 우리나라는 한 시루의 콩나물에 대가리 하나 낀 것밖에는 안 되는 나라, 지구 안에서도 그런데 대천세계를 한데 합친다면 그게 먼지 알갱이만이나 할까요? 그렇게 보잘것없는 먼지 알갱이 같은 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면서 서로가 옳지 않다고 싸움을 하고 화목지 못하고 이런다면 우리가 지금 공부한다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사대 오온이 다 공해서, 소천세계 중천세계 대천세계가 있다 한다면, 바로 우리 이 지구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는 대로 혹성들, 은하계, 태양계도 거기대로 문제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태양계도 수억 개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혹성들이 이 오온에 가득 차 있습니다.

또 벌써, 이런 말 하고 지나가면 벌써 백 년이 흘렀다는 둥, 십 년이 흘렀다는 둥, 삼 년이 흘렀다는 둥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요렇게 말하고 돌아서면 벌써 일 년이 지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똑똑히 따지고 보면 일 년 반이 지난다고 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돌아서면 말입니다. 그렇게 시공이 없이 빠른 그 진리 속에서 우리는 지금 허덕거리고, 이렇게 일일이 걸리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 은하계를 따지고 보면 우리는 지금 은하계의 별성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별 속에 별이 있습니다. 별에서 별을 낳듯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혹성이, 혹성 안에 별이, 우리는 혹성이면서도 별입니다. 별이면서도 그 속에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그 생명체들이 너무도 질서 정연하게 동맥 정맥을 오르고 내리는 반면에, 모든 일체 생명들은 자기 부서를 맡아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은하계도 조금도 틈이 없이 운행을 잘하고 있고, 혹성 이 지구 자체도 그렇고, 모든 것이 운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가 어디로 돌아가는지 우리는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구가 어디로 돌아서 어떻게 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대로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좀 더 상세히 말하자면 그 많은 혹성 중에, 그 많은 별성 중에, 그 많은 태양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